

EC속에서의 제언어들의 경쟁, 불어·독어 공용 사용국인 스위스 모델 연구*

이 건 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 이후 유럽공동체(EC)는 관세동맹적 성격을 띤 기존의 유럽 단일시장의 추구라는 차원을 넘어 유럽연방을 염두에 둔 정치·경제적 통합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와 상이한 문화 그리고 제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국경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이러한 급속한 움직임속에서, 유럽의 일반대 중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최대 난점은 역시 언어문제이다. 기존의 국경개념은 사라졌을지언정 언어경계선은 그대로 남아 제언어들간의 접촉과 경쟁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글에서는 장래 유럽공동체속의 언어적 상황을 예전해보는 보데로 독어·불어·이탈리아어·로망쉬어 등 4개의 국어가 있는 스위스의 예를 검토하여 보았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다양한 언어들간의 법적 평등을 전제로 하여, 언어권역간의 현상유지와 한 지역의 언어적 동질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속지성의 원리(principe de territorialité)에 근거한 다언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불어권과 취리히등의 독어권이 만나 이루어내는 언어경계선상의 2개언어병용(bilingualisme)지역들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용인구수에 좌우되는 언어들간의 실제적인 불평등의 현장이다.

I. 유럽통합에서의 언어문제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21세기를 앞두고, 2차세계대전 종전후 반세기를 졸곧 지배해온 미·소 중심의 냉전구조의 와해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소련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이 물고온 충격은 신유럽의 전설이라는 국면으로 숨가쁘게 이어진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관세동맹의 성격을 띤 기존의 유럽단일시장의 추구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유구한 유럽의 역사상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 통합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경제적으로는 1999년까지 유럽중앙은행을 설치하며 단일통화를 도입해 화폐통합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궁극의 목표는 유럽 전체의 국가들을 회원으로 갖는 유럽연방, 또는 유럽합중국에의 꿈이다.

그러나 야심찬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각국의 비준절차를 기치는 동안 92년 6월 덴마크의 국민투표에서, 외교·안보·경제·재정 등의 주요 주권행사권을 EC에게 이양할 경우 인구 500만이 채 못되는 작은 국가의 존립이 사멸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속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므로써,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은 파기될 난관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에 에딘버러에서 보인 EC정상들은 덴마크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조약상의 의무사항들을 상당히 완화해주는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93년 5월의 재투표에서는 57%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제 12개의 EC회원국 중에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감퇴와 유럽통합의 양대 견인차인 독일과 프랑스의 드세를 이유로 가장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영국만이 남아 마지막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공동체의 역사는 종전직후인 195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세기에 두 번씩이나 전쟁을 도발한 독일을 유럽이라는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평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중공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들을 공동관리함으로써 실리도 함께 추구하려는 의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의 발의하에 결성된 것이 52년의 일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이외에 베네룩스 3국과 이탈리아에 의한 이 공동시장은 1958년에 자연스레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이행되는데, 이상의 6개국들의 관세동맹적 협의체는 유럽의 경제발전과 산업부흥에 대한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점차 그 회원국 수는 늘어나 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하고 이어 81년과 86년에는 국내 민주화를 달성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차례로 참여해 12개 회원국인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일단 출범한 EC단일시장은 역내의 무관세 무역을 목표로 사실상의 국경선 철폐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상품과 자본, 서비스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자국내에서 와 마찬가지로 유럽공동체내의 어느 곳에서나 제한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유럽내 국경없는 하나의 시장형성은 EC규모에서 머물지 않고, 서유럽의 非EC국가들의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연계해 유럽경제지역(EEA)의 창설을 합의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유럽전역은 국가간의 어떠한 형태의 경계도 사라진 단 하나의 거대시장화하여, 인구 4억과 국제교역량의 절반을 조금 밀도는,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의 모습을 이내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교적 협소한 지역내에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역사와 상이한 문화, 그리고 제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강한 개성의 수많은 회원국들, 그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관세나 국경의 철폐, 또는 동일한 EC여권의 발급만으로 일시에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듯 다민족들이 국경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에서 당장에는 다양한 정치제도의 차이와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지만, 일단 정치엘리트들의 협상단계를 떠나게 되면 일반대중들이 유럽통합이라는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최대 난점은 역시 언어문제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전달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한 민족전체의 역사와 문화전통 그리고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신영역을 대변하는 정치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는 자기정체성이 이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언어문제가 제기하게 될 난관의 타개책으로 EC차원의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유럽의 신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16세기 문예부흥기에 전 유럽을 편력하며 연구활동을 했던『우신 예찬』의 저자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에라스무스(Europea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계획을

들 수 있겠다. 대학 재학시절 EC역내 타국의 대학에 일정기간 교환학생으로 머무르는 이 현지적응훈련은 1987년 시행이래 해마다 그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언어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유럽통합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4억 인구를 하나로 묶는 결집체이므로, 기존의 국경개념은 사라질지라도 언어경계선은 그대로 남아 이를 뛰어넘는 제언어들간의 조우와 경쟁양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너개 국어에 능통한 외국어교육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국제어인 영어와 불어, 게다가 가장 앞선 경제력과 가장 많은 상용인구를 앞세우며 통독후 국제적 위상이 급상한 독일어간의 경쟁과 상호영향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장래 유럽공동체속의 언어적 접촉과 경쟁문제를 예견해보는 것으로, 그 모델로서 4개의 국어가 있는 스위스의 예를 검토하고자 한다. 7백만이 못되는 적은 인구의 이 작은 나라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과 취리히등의 독어권, 남부의 이탈리아어권 그리고 소수언어인 로망쉬어족으로 나눠지며,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에 위치하는 오랜 중립국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유치된 수많은 국제기구 등의 이유로 영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스위스는 ‘유럽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그 별명에 어울리게 서구의 여러 주요언어들이 서로 공존하며 경쟁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스위스 언어구조가 목전으로 다가온 통합된 유럽안에서의 복잡다단한 언어현상을 미리 예견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II. 속지성의 원리에 근거한 다언어주의

4개의 국어를 지닌 스위스의 복잡미묘한 언어문제는 대내외에 이 나라를 지칭하는 공식 국가명이 *Confederatio Helvetica* 즉 헬베티아(Helvetia)연방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벌어 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럽대륙의 북판에서 동서남북의 국경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라는 유럽吏를 경영해 왔던 초강대국들에 맞대며 그 틈에서 어렵사리 독립을 유지해 온 이 작은 나라는 자신의 조국을 독어로는 Schweiz, 불어로 Suisse, 이탈리아어로 Svizzera, 그리고 동쪽 고산지역의 토착어인 로망쉬어(romanche)로는 Svizra라고 부르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특이한 지역으로서, 여기에 이 나라가 ‘유럽속의 유럽’ 또는 ‘작은 유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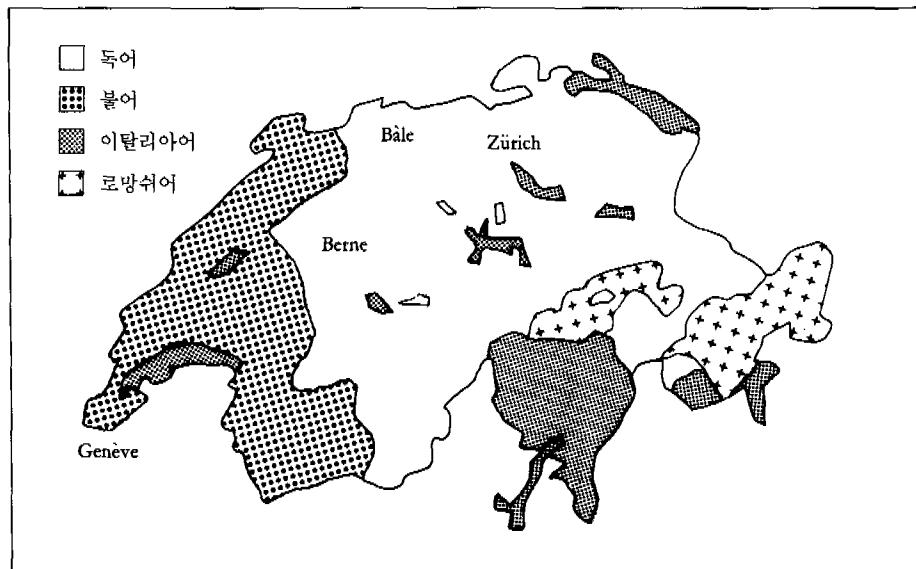
1880년이래 매 10년마다 행해져온 엄밀한 인구센서스는 스위스국민 개개인이 어떤 언어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확실한 지표가 된다. 거주인구비로 살펴본 1980년의 자료는 독어 65.0%, 불어 18.4%, 이탈리아어 9.8%, 로망쉬어 0.8% 그리고 6%의 기타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스위스 국적을 갖는 인구만의 비는 독어 73.6%, 불어 20.0%, 이탈리아어 4.5%, 로망쉬어 0.9%, 기타어들 1.0%로 거주인구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Camartin, 1982:258-259). 즉 이탈리아어의 경우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는 인구비는 4.5%에 불과하나, 상주외국인을 포함하여 모어를 이탈리아어로 하는 스위스 거주 인구

비는 9.8%로 전자의 두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알프스산 넘어 부유하고 안정된 스위스로 일자리를 찾아 넘어오는 엄청난 수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존재에 기인하며 사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이상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항상 과잉상태에 있는 무취득 국적의 외국인들을 제외한 스위스인들만의 인구비율 살펴보아도 불어인구는 1910년의 22.1%에서 점차로 줄어들어 1980년 20.0%에 이르는데 반해, 이탈리아어 상용자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3.9%에서 4.5%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향은 국제결혼의 결과로서, 이탈리아 국적의 여성들이 녹어줘거나 불어권의 스위스 남성과 결혼하여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람들이 형성하는 하급노동시장이라는 경제적 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주인구비율에 있어서는 65%에 불과하던 독어인구는 스위스 국적 자들만의 통계에서는 73.6%로 급상승하고 있다. 4명의 스위스인중 3명이 독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4개 국어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곳 스위스의 언어문제를 다루는 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해서 불어는 캐나다에서와 마찬가지로(이건수, 1992) 스위스에서도 제 2의 언어이기는 하지만 역시 열세의 소수언어로서 평가된다.

하나의 국가내에서 여러개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언어분쟁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의 예는 분명 특이하다 할 만하다. 즉 75%에 육박하는 제 1언어 독어에 맞서 불과 5명의 자국민중 단 1명만이 상용하는 언어인 불어가 동일한 위치를 보장받고 있는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예외

〈그림〉 스위스의 언어분포



자료: Lüdy, Georges et Py, Bernard(1989-1990:87)

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26개의 독립된 州(canton)들이 모여 이루어진 스위스연방은 언어적으로는 4개의 권역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진다.

주의 행정영역과 4개의 언어권역을 포개놓고 보면, 어떤 주들에서는 2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동부에 위치한 그라우뷘덴(Graubünden, 불어로는 Grisons)주에서는 무려 3개의 언어 즉 독어(60%), 로망쉬어(30%), 이탈리아어(10%)가 동등한 법적, 행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제 1, 제 2언어인 독어와 불어가 서로 맞닥뜨리는 언어경계선이 하나의 주를 관통하며 이를 둘로 양분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3곳으로써 북쪽에서 남쪽으로 열거해보면 베른(Bern), 프리부르(Fribourg) 그리고 발레(Valais)주들이다. 이곳들은 본격적인 bilinguisme(2개 언어 병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으로서, 언어들간의 빈번한 접촉과 아울러 다양한 갈등 소지의 개연성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전역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주안에 2,3개 언어의 공존현상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선 각 주들이 단일한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적 역사를 지닌 채 연방에 참여해 왔다는 통시적 사실 뿐만 아니라, 다수 언어 문제의 스위스식 해결책인 속지성의 원리(principe de territorialité)라는 法理상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속지성의 원리란 법적 원칙의 적용을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스위스 언어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언어 하나가 그 곳의 공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공식어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어를 쓰는 취리히 사람이 제네바로 일단 이사온 이후에는 자신의 사생활 이외의 모든 공적인 분야에 있어 새 거주지의 공식어인 불어반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스위스에서는 국부동화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공적 지방자치의 대표적 모델인 스위스연방은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입법·행정·사법권을 지닌 主權州들의 동맹체인데, 연방정부와 주사이의 관할권 배정에서 교육과 더불어 언어문제에 관한 입법권은 각 주들의 고유한 소관 업무에 속하고 있다. 스위스에 있어 언어에 관한 권리의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인 속지성의 원리는 4개나 되는 언어들의 공존이라는 스위스 언어상황의 현상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다양한 언어, 문화적 유산들을 특색있게 보호,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이 원칙은 결국 스위스 인구의 3%이 보국어로 사용하는 독일어나 단지 인구의 1%미만의 언어인 로망쉬어를 함께 동등한 스위스의 국어로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로써 독어권속에 사는 독일계 스위스인이나, 주민의 90%가 이탈리아계이며 주의 언어가 이탈리아어인 티치노(Ticino)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공동체내에서만은 적어도 최대한의 언어적 자유를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기실 스위스의 현행 연방헌법은 1938년 2월 20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116조에서 언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성문화하고 있다. 제1항은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쉬어는 스위스의 국어(langue nationale)들이다.”로서, 그 상용자 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4개 언어 사이의 평등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제2항 “독어, 불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연방의 공식어(langue officielle)로 선포한다.”라는 규정은 4개의 국어중 로망쉬

어가 공식어에서 탈락하는 언어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어와는 달리 로망쉬어는 자신이 주축이 되는 촘를 갖지 못하고 단지 그라우뷘덴주의 제2의 언어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 공식어란 베른의 연방 정부, 의회, 법원이 사용하는 대국민 언어이며 동시에 스위스 국민이 연방을 상대할 때 써야하는 언어이다. 즉 로망쉬어를 모어로 갖는 사람들은 비록 이 말이 스위스의 국어중의 하나일지라도 연방 정부를 상대할 때는 사용할 수 없어 독일어를 쓰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실용적 이유 등으로 로망쉬어를 구사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로망쉬어를 쓰는 한 마을이 독어화된 예로 베른대학 언어학과의 크리스띠앙 뤼바뗄(Christian Rubattel, 1976:23이하) 교수는 그라우뷘덴주의 독어권과 로망쉬어권의 언어경계에 위치한 소읍 보나두즈(Bonaduz)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16세기 아래 자기나름의 문화를 고유의 언어로 지켜오던 로망쉬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독어를 정확히 구사하므로 이 두개 국어 모두에 능통하지만, 지난 세기 말에서 금세기 초에 작은 마을 보나두즈에서 있었던 경우처럼 자신들의 모어인 로망쉬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13세기 말에 합스부르크가의 지배에 대항하여 스위스 복판에 자리한 우리(Uri), 쉬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주들이 동맹체를 맺은 아래, 스위스연방은 근처의 독어를 쓰는 주들을 하나 둘 결집해 나가니 급기야 19세기 초에는 서부와 남부의 비독일어권으로 까지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르른다. 즉 1803년에는 이탈리아어의 티치노주와 로잔느(Lausanne)를 중심으로 하는 불어권의 맹주인 보(Vaud)주가 연방에 가입하며, 이어 1815년에는 발레, 뇌샤뗄(Neuchâtel)과 더불어 자신만만하고 부유한 도시 제네바가 마지막으로 동참함으로써 스위스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결국 이 나라가 다언어, 다민족, 다문화 국가의 연방체로 성립한 것은 19세기 초의 일로써,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기존의 독어권 주들이 어떠한 언어적 통화 요구도 연방에 새로이 가입하는 불어나 이탈리아어를 쓰는 주들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방 내 각 개의 주가 자유로이 자신의 공식어를 선택한다는 이러한 전통은 신생주들이 스스로의 언어와 문화 위에 기초한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과의 불필요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문맥에서 다시 보나두즈의 경우로 되돌아 가보자.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모어인 로망쉬어를 포기한 데는 어떠한 외압-그것이 연방정부이거나 주정부이건 간에-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스위스 연방내의 각 주들이 사정에 따라 자신들의 공식어를 하나 또는 둘 그리고 문제의 그라우뷘덴의 경우처럼 세까지 정할 수 있는 것파는 달리, 주 밀의 행정단위인 읍(commune)은 반드시 4개의 언어권중 어느 하나에만 배속된다. 원래 로망쉬어권에 속하던 보나두즈읍은 독일어권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급속히 독어화되었고 급기야는 언어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로망쉬어밖에 말할 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독어권의 아이들이라 간주하고 가르쳐 달라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요구하였으며 게다가 그들은 독일어 실력이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 조차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독어로 말하려고 애썼다. 뤼바뗄(1976:25)이 로망쉬어 연구에 관

한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두개의 저술, 즉 Cavigelli의 「Die Germanisierung von Bonaduz in geschichtlicher und sprachlicher Schau(1969) 보나두즈의 독일화에 대한 역사 언어학적 고찰」와 Wunderli의 「Zur Regression der Bündenromanischen(1966) 그라우뷘덴주의 로망쉬어 퇴조에 관하여」은 한결같이 결론으로 보나두즈와 같이 급격하게는 아닐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로망쉬어가 사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5만이라는 극히 적은 사용인구에다가, 더구나 지역마다 특이한 사투리가 5개씩이나 있어서 같은 로망쉬인들이라도 타지역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쌍방이 독어를 써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로망쉬어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위스 제3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는 이와는 달리 연방의 공식어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상황은 로망쉬어와 대동소이하다. 스위스인의 5%미만이 사용하는 언어이기에 타언어권내에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다가, 이런 약세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고등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취리히와 바젤의 대학에서는 독어만이 사용되고 제네바, 로잔느, 뇌샤텔대학에서는 불어만이, 그리고 베른과 프리부르대학은 독어, 불어가 동시에 사용되나, 이탈리아어가 통용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이 더욱 이 언어를 위축시키기만 한다. 그러므로 티치노주 출신의 고교졸업생이 국내 대학에 진학 하려면 불어나 독어구사력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흔히 같은 라틴어족인 불어를 스스럼 없이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80%의 어린이들은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III. 스위스로망드의 언어문제

스위스연방내의 불어권지역을 스위스로망드(Suisse romande) 또는 약해서 로망디(Romandie)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언급한 보나두즈의 예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었듯이, 이 불어권 스위스는 정치적 시각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스위스로망드 지역은 서쪽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는 있으나 언어적 장벽이 전혀 없는 반면, 동쪽으로는 같은 나라이지만 전혀 언어가 다른 독일어권에 접하고 있다는 지리상의 독특한 여건 때문이다. 스위스 불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권위자 뼈에르 크네히트(Pierre Knecht, 1979:249) 교수는 한편으로는 스위스연방이라는 정치구조에 속하나 또 다른 쪽으로는 프랑스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 로망디지방을 “정치적으로는 스위스인 프랑스, 또는 언어적으로 프랑스인 스위스”라고 적절하게 정의한 바 있다. 중앙집권적인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스위스의 연방정신이 정치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이 지역은 사실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들, 브장송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쉬-퐁메지방이나 디종을 핵으로 하는 부르고뉴지방, 또는 사브와지방과 언어적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스위스로망드에서 발견되는 불어의 제 특징들은 대개가 프랑스의 남동부지역의 어디에서나 흔히 관찰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듯 프랑스에 언어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려는 이곳 주민들의 끊임없는 의지의 추구, 그리고 불어권 스위

스내의 응집력있는 문화적 구심점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정체성의 상실감은 다음의 일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알랭 샤르펠로(Alain Charpilloz)가 「불어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부친에게서 들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1940년 6월의 어느날 아침, 독일군대가 파리를 점령하고 샹제리제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그의 부친은 눈물로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직장으로 걸어서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그의 결론은 “이것이 우리를 불어권 스위스인들의 피치못할 운명이다. 프랑스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프랑스와 함께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턱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1992:47) 언어와 밀접히 결부된 이러한 국빈정서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 내려오는 공동의 그릇이며 동시에 사용자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의 실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스위스 대외정책의 부동의 강령인 중립주의는 17세기 초에 전유럽을 양면으로 나뉘어 싸우게했던 종교전쟁중에 최초로 성립된 것으로, 그 와중에 구교와 신교가 백 중세인 스위스가 어느 한쪽 편을 들게되면 필히 야기될 엄청난 내란을 이유로 표방되었던 이 중립선언은 강대국들에 포위되어 있는 스위스의 독특한 생존을 위한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공적인 관리하에 있는 이런 외교적 중립노선과 실제 각 언어권내부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선호는 자못 다를 수 있다. 그 예로 독어권은 독일을, 불어권은 프랑스를 지지하므로 한 나라가 내부에서 두 쪽으로 대립하였던 제1차대전중의 스위스를 살펴보자.

돌발적인 사건으로 터진 1차세계대전은 스위스에게 정치외교적인 대응에서부터 편수식량의 비축에 이르기까지 전혀 준비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전쟁에 직접 휘말리지는 않았기에 예의 중립성의 명맥이 겨우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전유럽이 전쟁을 치루고 있던 이 4년간은 스위스역사에 있어 내분의 깊은 곁을 파놓았다. 이것은 독어권과 불어권의 대립과 같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 전통에서도 독일쪽에 몹시 기울어지는 독어권과, 이해관계나 문화적 친화력면에 있어 프랑스쪽에 설 수밖에 없는 불어권 스위스 사이의 간극은 벌어질대로 벌어지게 되었다.『스위스史 Histoire de la Suisse』의 저자 디터 파르니 Dieter Fahrni(1983:79)가 “경제와 인구수의 면에서 월등한 독어권 스위스의 전통적 우월성이 돌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일련의 대형사건들이 대전중에 연이어 터졌다. 그 도화선은 프러시아식 군국주의의 맹목적 신봉자인 울리히 빌레(Ulrich Wille)장군이 불어권측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어권의 강력한 지지로 스위스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된 이후, 군정보국이 독일에 군사기밀을 은밀히 제공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비독어권 지역에서는 군수뇌부의 친독성향을 성토하며 나섰고, 이런 내분은 새로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어 발생한 호프만(Hoffmann)件은 연방행정부의 7인의 각료중 한 사람이었던 그가 1917년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평화조약을 은밀히 주선하려다 이런 비밀외교임무가 누설되어 즉각 사임해야했던 사건으로서, 자신의 오랜 전통의 중립주의를

위태롭게까지 하며 분쟁중인 한 쪽을 위해 중계행위를 했던 스위스는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들의 민족을 샀다. 사성이 이러하자 스위스내의 불어권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연방은 7인으로 구성되는 중앙집행부에 불어권에 할당되어 있던 기준의 1석이외에 또 한자리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이는 차후 연방정부의 각료구성이 5명의 독어권과 2명의 불어권 출신 인사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스위스국내에서의 독·불 두 언어권의 첨예한 갈등은 프랑스를 위시한 연합국의 승리로 일단 진정되었다.

이렇듯 스위스는 여러 국어가 공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배타적인 자신들만의 언어권들로 다시 분할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스위스식 다언어주의란 다른 아님 이런 속지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는 특정언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여러 언어권역들의 병렬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고작 전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불어가 놀라운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불어는 스위스내의 소수언어’라는 인구비에 따른 상황인식은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위스로망드는 오직 언어라고는 불어만이 통용되는 1개 국어 사용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스위스 전역에 걸쳐 언어경계상에 위치하는 몇몇 지역은 예외적으로 언어공용지역이지만, 불어권 스위스는 결코 불어이외의 다른 언어가 소통되는 지역이 아니며 따라서 이곳에서 불어는 주민의 100%가 사용하는 절대다수의 유일언어인 것이다.

IV. 스위스식 불어의 제 특징

부르봉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절대왕조가 파리에 자리 잡은 이래, 프랑스 국내의 여러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로망드에서도 파리식 부르즈와들의 언어가 점차적으로 패급되었다. 각 지방의 세도가들은 파리학술원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파리의 방언을 표준어로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고, 학교는 이런 표준화된 불어의 보급에 가장 중요한 매체수단이었다. 하여 지방의 여러 사투리들은 이러한 불어의 난일화라는 추세를 따라 급기야 표준어로 부상한 파리식 방언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무리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파리화하였다 하더라도 국경너머의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불어는 오늘날까지도 나름의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우선 이곳의 불어는 파리식 불어를 받아들이던 그 시대의 혼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봄시도 엣스러움이 간직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준다. 이 점에 대해 스위스 불어 전문가들인 크네히트(1979: 252이하)와 뷔바뗄(1976:29)은 브륄라(Voillat)의 중요한 연구 「현행 스위스지역 불어의 양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런 고풍의 예를 들어보면 표준불어에서는 19세기 말에 이미 사라져버린 단모음 단어에서의 폐음 /ø/음과 개음/ɔ/음의 구별이 스위스 불어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mo] maux 악 / [mɔ] mot 난여

[po] peau 피부 / [pɔ] pot 항아리

[so] seau 들통 / [sɔ] sot 바보

현대불어 음운론으로는 [ɔ]는 [o]로 흡수통합되어 위의 예들은 모두 동음이의어로 분류되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나, 스위스식 불어는 아직도 음의 개·폐 여부를 따져 뜻을 분화해 쓰고 있다. 음운론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단어들의 순서가 결정되는 통사론에서도 이런 고풍스러움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동사+부사라는 고전적 구문을 표준불어에서보다 훨씬 선호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흉내낸다’라는 뜻의 파리의 표준어 il copie sur moi를 인정치 않는 이 지역에서는 il me copie dessus가 통용되는데, 이는 동사+전치사+인칭대명사의 현대적 어순보다는 보어인칭대명사+동사+부사의 옛형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옛스런 문장구성법인 동사+부사에의 애착은 최근까지도 partir(떠나다), jeter(던지다), sortir(나오다), renvoyer(쫓아내다)등의 기본적인 동사 개념을 aller loin(멀리 가다), mettre loin(멀리 놓다), aller dehors(밖으로 가다), mettre dehors(밖에 놓다)같은 우회적 어구로 즐겨 표현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근간이라 할 통사론에서 표준불어와의 이렇다 할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하여 스위스 지역 불어의 특이성은 어디에서보다도 어휘면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소위 스위스식 불어 어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하나가 토속사투리의 차용이다. 파리중심의 북부언어인 오일(oil)어가 표준어로 되면서 스위스로망드의 사투리인 프랑꼬프로방살(Francoprovençal)을 완전히 대체했다고는 하지만, 특히 표준불어에 정확한 대응어가 없는 경우에 기존의 사투리에서 빌어온 단어들은 그대로 보존되는 경향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예가 사투리에서 나온 déguiller동사로서, 이것은 불어의 ‘tomber(떨어지다)’동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faire tomber(떨어지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까지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어휘의 지시대상물 자체가 프랑스에는 아예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용례가 스위스의 州를 의미하는 명사 canton인데, 지역의 특수한 정치전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이 봄시도 스위스적인 용어는 그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가 ‘헬베티아 연방의 회원 국가’인 것이다. 스위스식 어휘의 마지막 부류로는 불어에 있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로서, 원래 ‘법정관리인’을 뜻하는 불어의 법률용어 syndic를 ‘읍장’(불어로는 maire)을 지칭하는데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 자주 거론되는 예이다. 그러나 스위스식 불어의 전형적인 모델로 방금 제시되었던 단어 syndic도 실은 스위스로망드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의 대표자를 일컫는 명칭으로 syndic가 쓰이는 곳은 오직 보와 프리부르 두개 州일 뿐, 발레와 뇌샤멘에서는 ‘의장’이란 뜻의 président이 사용되고, 심지어 제네바와 쥐라 州에서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maire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어권 스위스내에서도 지역마다 어휘의 용례가 달라지는 또 다른 예로서, ‘아외에서 숯불에다 소시지를 구워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torrée라는 단어는 오직 뇌샤멘 州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syndic나 torrée와 같이 스위스로망드내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나 국한적으로 쓰이는 어휘와는 달리, 불어

에 있어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한 숫자들인 70(soixante-dix, $60+10$)과 80(quatre-vingts, 4×20) 그리고 90(quatre-vingt dix, $4\times20+10$)을 간단히 septante, huitante, nonante로 대체해 쓰는 것은 불어권 스위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프랑스의 북쪽 국경 넘어 위치해 있는 유럽의 또 다른 불어권 국가 벨기에에서도 발견되는 초로망디적 용례이기도 하다.

스위스 불어의 중요 특징으로는 앞서 차례로 제시한 음운론과 통사론에 나타나는 의고적 경향 그리고 어휘론에 지역성이 반영된 특이한 용례들 이외에도, 다른 불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스위스로망드 출신을 단번에 알아보게 하는 이른바 스위스식 억양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로망드의 악센트는 표준불어의 어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불어 발음법의 옥시뚱(oxyton) 즉 단어의 맨 끝 음절에 강세를 주는 철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 지역의 원래 사투리였던 프랑꼬프로방살이 옥시뚱을 지키는 파리식 불어와 특히 구분되는 것은 어미에서 2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빠록시뚱(paroxyton) 때문인데, 오래전에 사투리 자체는 버렸지만 이 어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로망디의 언어현실이다. 물론 표준어에서도 마지막 음절이 아닌 곳을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를 강조악센트(accent d'insistance)라 부르는데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황등이 어조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그 위치가 어디에나 올 수 있으나, 대개는 첫 음절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리사람이 스위스로망드인과 접할 때 느껴지는 과장스러움은 그가 듣기에 강조악센트가 너무 빈번히 사용되는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위스 불어 억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투의 매우 느린 속도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찍부터 부르즈와의 가치관인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프로테스탄트 도회지들인 제네바, 뉴샤텔, 로잔느의 말투가 아직껏 키톨릭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 농촌지역인 발레, 프리부르, 쥐라abe들에서 보다는 조금은 더 빠르다고 간주된다. 아무튼 프랑스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여전파 아울러 자신의 고유 사투리를 버리고 일찌기 파리의 말을 받아들인 역사성으로 인해 숙명적으로 파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이곳의 불어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었기에 언어 자체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민감히 변해 온 표준어보다 더욱 보수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느리기가 한이 없는 말의 속도는 결코 스스로는 불어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곳의 언어적 보수성을 더욱 두드려져 보이게 한다.

여하간 자신들의 정체성의 모델이며 동시에 외국 것인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스위스로망드인들의 감정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세련된 파리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문화와 언어의 제국주의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위스로망드인들은 자신을 불란서인이 결코 아니라 스위스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일상의 언어상황에서도 교통과 통신, 정보의 눈부신 현대적 발전앞에서도 파리식 언어보다 자신들의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스위스식 불어를 의식적이고 교묘히 유지해가고 있다. 특히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과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는 州가 단위가 되어 이루어지는 스

위스연방 특유의 정치활동에서 이곳의 정치가들이 즐겨 구사하는 지역불어는 일종의 선동성을 띤 정치 사회적 측면을 갖는데, 이는 지역성이 농후한 그들의 언어가 바로 그 자신의 애국심(애향심)의 척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V. 독어화, 알레마니끄화

스위스 불어의 제특징을 살펴보는 이 자리에서 끝으로 독일어권 스위스가 미치는 언어적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언어의 독어화(germanisme)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 불어에 나타나는 독어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선 스위스의 독어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알레마니끄(alémanique)라고 불리는 스위스식 독어는 베를린의 표준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지역 방언이다. 스위스의 독일어를 표준독어로는 Schweizerdeutsch라고 하는데 Schwyzertütsch라고 발음하여 독일인도 못 알아 들는 방언 알레마니끄에는 독어권 스위스의 구어로서 모든 일상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비해, 이곳에서 표준독일어는 단지 글을 쓰는데만 이용되는 문어의 구실을 한다. 이렇듯 독어권 스위스인들은 구어(Mundart)와 문어(Schriftdeutsch)가 분명히 구별되는 이중의 언어생활을 하는데, 1개 언어의 두 가지 변화체를 공유하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2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병용하는 bilinguisme과 구별하여 디글로시(diglossie)라고 한다.

사실 언어의 발전사에서 스위스의 불어권과 독어권은 큰 차이를 보인다. 스위스로망드가 일찌기 자신의 고유 사투리를 버리고 파리식의 정확한 불어를 신속히 받아들인데 비해(물론 여기에는 막강한 중앙집권적인 프랑스 절대왕정의 역할이 지대했지만),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 분할되어 비스마르크 이전에는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어보지 못한 게르만 민족의 분열상황은 독립성이 강한 산골짜 오지의 스위스인들이 자신들의 독어를 폐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불어권에서 프랑꼬프로방살을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투리(patois)라고 치부할 때, 독어권은 자신의 언어인 Schwyzertütsch를 독일어의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의 이형, 즉 당당한 지역의 언어인 방언(dialecte)이라고 자랑스레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독어권과 불어권 스위스인들간의 접촉에서 사용되어온 언어는 낭연히 불어였는데, 이는 독어권 식자총에게서 항상 인기를 누려왔던 불어의 문화어로서의 가치도 인정되지만, 실은 여기에는 더욱 실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다. 즉 독어권 사람들이 불어를 배우면 로망디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파리에 가서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지만, 불어권인이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독일어로는 당장 자신의 동국인들 즉 알레마니끄어를 쓰는 독어권 사람들과 말로써 의사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위스식 독일어는 동일한 하나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마다 나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나수 방언들의 집합체임도 부언해 두자.

스위스의 불어에 나타나는 독어화, 정확히 말해 알레마니끄화는 우선 통사론에서 불

어 자체의 내부구조에 당연히 변형을 가져와, ‘누구를 기다리다’라는 뜻의 표준불어는 attendre quelqu'un인데 비해 여기에 뜻밖의 전치사 sur가 첨가되어 attendre sur quelqu'un이 된다. 이는 스위스식 독어 *uf öpper warte*(표준독어로는 *auf jemanden warten*)안의 전치사 *uf*의 영향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의 기본 틀인 통사론을 침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영역에서 알레마니끄의 영향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드물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휘면에서 그것도 특히 역사적으로 게르만족이 우위를 보여온 군사분야에서는 *Schwyzerütsch*에서의 차용은 매우 빈번하다. 워프형 과녁을 뜻하는 스위스식 독어 Schibc(표준독어의 Scheibe)를 불어권에서 cibc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다시 프랑스에 전해져 표준어 cible이 된 것이 그 중 가장 유명한 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위스 불어에 나타나는 알레마니끄어의 차용은 봄 시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두 언어간에 두드러지는 음운론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스위스식 불어어휘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poutser*등사는 ‘집안 청소를 하다’라는 뜻으로 독일어 *putzen*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불어에는 없는 발음인 파찰음 [ts], [tʃ] 등을 버리거나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 어원이 외국어임을 언어사용자가 상기하도록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독어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연방불어(*français fédéral*)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원이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방불어라는 이 용어는 원래 연방차원의 미숙한 행정불어 즉 연방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독어권 출신 공무원들에 의한 독어식 불어 특유의 실수투성이 형편없는 불어번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어권 출신 공무원이 녹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관하는 오늘날에도 연방불어는 비판적으로 지적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방행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공업 분야의 문제로 이전되어 있다. 이 용어는 취리히나 바젤 등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독어원문을 상업용 특히 선전용의 불어로 옮길 때 행해지는 조악한 번역을 가리키는 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녹일어와 녹어권 스위스의 변함없는 군림에 크게 불만인 비독어권 연방공무원들이 불어권을 주축으로 1980년 6월에 ‘라틴계 헬베티아(Helvetia latina)’라는 단체를 만들어 세인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연방행정부내에서 소수언어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치성 강한 이 단체의 출현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다언어주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스위스 같은 곳에서도 상이한 언어권간의 물이해와 집단 캠페인(그것이 우동이건 열동이건)의 존재를 목격하게 해주는 계기였다.

VI. 언어적 평등의 실상, 프리부르의 경우

다언어국가이나 속지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스위스연방 내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프리부르의 존재는 분명 예외에 속하는 경우이다. 이 중세풍의 도시를 좌우로

가르며 흐르는 강 하나가 불어권과 독어권의 천연의 언어경계선(frontière linguistique)을 이루고 있다. 스위스 지도를 보면 이 강을 왼쪽에서는 불어로 Sarine(사린느), 오른쪽에서는 독어로 Saane(자아네)라고 동시에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두 언어 간의 공존 현장인 프리부르는 어쩌면 베른을 제치고 연방수도 소재지가 될 수도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열렬히 카톨릭을 신봉하는 이 도시는 신·구교도 주민들 간에 1847년 불붙은 내전 중 존더번트(Sonderbund) 즉 구교측 분리동맹에 적극 가담 후 패배하였기에, 16세기 쭈빙글리(Zwingli, 1484-1581)와 칼뱅(Calvin, 1509-1564)이래 종교개혁의 투철한 정신이 지배하는 스위스연방의 일반정서와는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 연방수도 지명 탈락의 이유였다.

남독일의 명문 귀족 체링겐가가 1157년에 세운 프리부르시는 12세기에 벌써 2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1481년에는 드디어 스위스연방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의 언어 상황은 프리부르성 안에 거주하는 귀족층과 상공업자 시민들은 불어를 쓰고 있었는데 비해, 도회 주변에서 영지를 경작하던 대부분의 농민들은 독어계였다. 이렇게 상하로 2분화되어 있던 언어구조는 프리부르주가 일단 연방에 들어오자마자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연방내의 모든 주들이 독어반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 가입한 신주인 프리부르는 자신의 독어권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과시해야 할 정치적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언어사에 정통한 발터 하아스(Haas, 1982:61) 교수에 따르면, 1438년부터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프리부르시 의사록에는 공식어였던 라틴어와 불어 틈틈히 여기저기에 1447년부터 독일어가 하나 둘 등장하는데, 급기야 연방가입 2년후인 1483년 이후에는 의사록 전체가 독어로만 작성되기에 이르른다. 그러나 불·독 2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므로 쉽사리 독일어로 공식어를 바꿀 수 있었던 고위층이 주축이 된 이런 독어화 정책은 16세기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는 불어가 모어인 프리부르의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였다. 1495년에 학교에서 불어가 이미 추방되었고, 1527년에는 집안에서도 독어로 말해야 하는 등 외국어인 불어를 쓰지 말라며 독어반을 강요하는 당국의 갖은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낮에는 거리에서 계속 불어로 일상사를 영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밤에는 저항의 표시로 날이 새도록 불어 노래를 불러대는 소동이 연일 빚어져 결국 스위스연방에 참여하고 있는 프리부르주의 체면에 크게 손상이 갈 정도였다. 이에 주당국은 특별법을 제정해 불어계 주민 수를 대폭 줄이고 독어계의 비율을 늘리려고 시도할 정도였으나, 당시의 스위스연방안에서 내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언어가 행한 막중한 역할의 비중을 짐작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1291년 8월 1일 합스부르크가에 대항하여 3개의 쟄가 동맹체를 이룬 이래 착실히 주의 숫자를 늘려나가던 스위스가 꿈에도 바라지 않던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그 후 부터 350년이 지난 나음의 일로써, 종교문제가 이슈가 된 30년 전쟁이 끝난 후인 1648년에 조인된 베스트팔리아조약에서이다. 사실 프리부르주가 15세기에 연방에 들어온 이래 다음 세기에 적극적 독어화 정책을 시행했던 기간은, 스위스연방으로서는 국내적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통일성을 공고히 하며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부르고뉴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을 모색하던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불어와 독어 이 둘 모두를 주의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프리부르의 인구분포는 65%의 불어계와 35%의 독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구의 $\frac{1}{4}$ 을 차지하면서도 여타 소수언어들에 대해서 관대하기로 정평있는 스위스의 독어권은 이곳 프리부르주에서 만은 인구 $\frac{1}{3}$ 의 소수집단이며 따라서 여러 면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열세는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스위스내의 가장 완고한 보수주의 카톨릭의 아성인 프리부르주에서 신교를 믿는 종교적 소수파 역시 독어계 주민들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프리부르주의 선거구들은 불어와 독어라는 언어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므로 해서, 선거구민들이 직접 뽑는 의원들과 1심 법원 판사들은 그들과 같은 언어의 소유자인 것이다. 따라서 4개 언어 국가인 스위스가 연방차원에서 속지성의 원리를 채택하듯이, 2개 언어를 공용하고 있는 프리부르는 이 원칙을 주 차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주의회 구성은 불어계 대 독어계가 2:1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주의회에서는 불어와 독어가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의원 각자는 자신의 언어로 발언하면 된다. 통역장치가 없으므로 해서 의원들에게는 상대방 언어에 대한 충분한 조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하나의 법안을 놓고 독어로 묻고 즉석에서 불어로 답하는 특이한 토론과정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2개국어 사용의 생생한 장면일 것이다.

한편 임기 5년의 7인으로 이루어지는 프리부르주정부의 조직에 있어 언어적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것은 소수 독어계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어떠한 법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구의 $\frac{1}{3}$ 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어계는 주정부내에서 단 1명의 각료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연방각료 정원중 2자리를 펼히 불어권 인사에게 배당하여 소수파의 정치적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연방정부의 배려와 크게 대비된다. 하지만 행정면에 있어서 프리부르주는 자신의 이러한 언어상황을 잘 반영하듯 모든 부서의 부책임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관과는 모어가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대민 업무는 언제나 불·독 2개의 언어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프리부르주정부가 내세우는 것으로,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어가 복수인 모든 주들 중에서 유일하게도 자기 주만이 공무원들에게 언어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각자의 제2언어를 충분히 익히도록 배려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프리부르의 주정부 공무원중 $\frac{1}{3}$ 이 독어계라는 자료와 더불어, 공무원의 $\frac{1}{3}$ 이 불어와 독어 2개 언어를 모두 구사한다는 통계수치를 접하고 보면, 프리부르주가 그토록 사랑하는 언어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어계 공무원들에게 더욱 완벽한 불어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의도나 아닌지 의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튼 주 수도인 프리부르시가 다행히도 언어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부서에 있어 언제나 독어계축을 인구비례에 따라 참여하게 해 온 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프리부르주의 인사정책인 것이다.

사법제도에 있어서 프리부르주는 언어에 따라 8개의 소관할지구로 나뉘어져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직접투표로 선출된 그 지방 출신 판사들이 재판을 관장하므로 해서 1심재판소인 지방법원(tribunal de district)에서는 원칙적으로 어

떠한 언어적 문제도 제기될 수 없다. 한편 불·독 2개의 언어를 주의 공식어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둘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곳은 특히 2심법원인 주 고등법원(Cour suprême cantonale)에서이다. 프리부르주의회에서 임기 8년으로 임명되는 7명의 주 고등법원 판사들의 인원구성에 관한 언어규정은 단지 과반수 즉 4명은 불어와 독어를 공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몹시 단순하게 보이는 이 조항은 실은 7명 전원 모두가 일단 불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3명은 전혀 독어를 몰라도 되고, 4명의 2개국이 사용자중에 극단적으로 말해 독어가 모어인 판사가 단 1명도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공적인 언어사용에 있어 모델이 되는 법원의 언어가 이렇듯 프리부르주에서는 오직 불어로 일색화되니, 2개언어 병용이라는 명색이 무색할 정도이다. 사실 주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불어만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하급법원에서 올라오는 독어로 된 문건들을 불어로 번역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불어를 모를 경우 불어로 이루어지는 공판내용을 독어로 통역해 주어야 하는 일 등은 법원측의 의무이며, 물론 독어계 소송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어로 자유로이 진술하면 된다. 그러나 역시 프리부르의 사법제도내에서 독일어가 열세에 처해 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1980년에 프리부르주 사법부내의 편향된 언어사용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불어를 공식어로 채택한 사린느區의 지방법원에 독일계 여성 주민 하나가 자신의 모어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 지역의 法定언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일이 있었다. 즉시 스위스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이 언어관할권 문제는, 언어권역간의 경계유지와 더불어 한 지역의 언어적 동질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속지성의 원리, 그 적용의 어려움 그것도 특히 프리부르와 같은 다언어지역에서 뜻밖에 봉착하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스위스의 대법원인 연방법원(Tribunal fédéral)은 그 입장표명을 할때 속지성의 원리는 변함없이 지지하나, 사린느區의 언어적 동질성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체인구의 50%에 이르는 비율(불어)은 분명 언어적 다수임에 틀림없지만, 문제의 지역(사린느區)은 보호되어야 할 어떠한 언어적 단일성도 갖고 있지 않다”(Camartin, 1982:265)라는 것이 그때 개진된 연방법원측의 의견이었다. 사실 프리부르시의 발생지이며 그 심장부인 사린느區는 불·독 언어경계선을 이루는 사린느강 유역의 지역으로, 1948년 이전까지는 불어와 독어의 혼합된 두 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던 것이 합쳐진 것으로, 불어계가 과반수는 조금 넘지만 독어계도 백중세를 이루는 곳이라 이 지역을 단일하게 대표하는 언어적 동질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의 의견대로라면 이 작은 区를 언어에 따라 다시 2분하던지, 아니면 이미 프리부르가 주차원에서 채택한 불·독 2개언어 공용원칙에 반족하지 않고 그 밀단 행정단위인 区에서마저도 문제의 두 언어를 다시금 공식어로 병용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일이다. 아울든 이 사건은 언어적으로 복잡한 지역에 있어서 속지성의 원리의 완벽한 적용에는 역시 한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일로 평가된다.

연방 전체로 볼때 이 곳 프리부르주에서 65%를 차지하는 다수파 불어계는 언어의 철

지한 속지주의 지지론자들이며, 다수파 언어에로의 동화라는 사안에 대해서 강경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리부르주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법률, 법령 그리고 포고문은 불어와 독어 두 언어로 공포되어야 한다. 이 중 불어문서를 원본(texte original)으로 선포한다.” (Mackey, 1976:523) 州의 법률공고를 다룬 21조중 문제의 단서 조항은 결국 소수언어 독어의 법적인 공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률의 원본을 하나로 고정시킴으로써 법해석상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단서의 진짜 속뜻은 프리부르주의 입법활동의 대부분이 불어로 이루어지게 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독어로 된 법문서란 결국 불어 원본의 단순한 번역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렇듯 법에서도 독어를 불어보다 하위에 놓으며, 소수언어인 독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규정도 전무한 프리부르의 2개국어 공용현장은 언어문제에서 완전한 평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VII. 언어·종교·경제의 다원적 결정, 쥐라의 독립

하나의 도시라는 극히 제한된 공간내에서 불어와 독어 2개의 상이한 언어집단이 언어경계를 형성하며 공동의 삶을 함께 영위하는 2개국어병용 양상으로는 프리부르이외에도 베른 州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빌(Biel)을 들 수 있다. 불어로는 비엔느(Bienne)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프리부르시와는 정반대로 인구의 구성이 ¾의 독어계와 ¼의 불어계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대립적 언어공동체가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도시를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이면에는 그 원인도 복잡다단하여 정의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간등과 격렬한 분쟁이 두 언어집단간에 상존해왔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2개언어공용 도시인 빌市를 중심으로 하여 1978년 이전의 베른주는 州 인구 85%를 차지하는 남부독어권과 쥐라(Jura)라고 불리우는 북부산지 인구 15%의 불어권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프랑스와 스위스간의 자연국경을 이루는 쥐라산맥내의 이 쥐라지역은 그 지역 전략적 위치 때문에, 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이를 자신의 종립성마저도 포기하며 맹종하는 헬베티아공화국의 수립(1798년) 그리고 이어지는 1803년이래의 나폴레옹의 스위스 내정간섭과 종재라는 격동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내내 제네바등지와 함께 프랑스에 병합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몰락후, 스위스의 종립성과 아울러 그 영토의 불가침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1815년의 비엔나회의로 프랑스는 제네바, 뇌샤텔, 발레지방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들은 즉시 스위스연방에 세로운 3개 州로 기입하였다. 이 때 쥐라지역도 베른주의 보호령이라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언어가 불어인데다 바젤주교령에 속했던 관계로 종파마저도 구교인 이질적인 문화의 쥐라지방은 베른주내에서 그나마 19세기말까지는 법률과 세금, 빈민구제와 직업등에 관해서 특별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893년에 베른주가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쥐라가 흡수통합될 때 부여하였던 이 특별지위법을 州내의 균등성 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아예 폐기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870년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대파한 보불전쟁의 영향이 역력했는데, 향후 스위스는 친독일 성향이 두드러졌고 게다가 신교를 믿는 스위스로망드까지 가세해 반구교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즈음 쥐라지방에는 종교적인 양분화현상이 표출되었는데, 독어계 베른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정착한 남쪽지역내에서 신교가 과급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완고하기로 이름난 북쪽지역은 더욱 보수화경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자신들이 불어와 카톨릭으로 요약되는 전통적 쥐라의 정통성을 대변한다는 의식이 증대해감에 따라 이 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쥐라가 베른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분리주의 운동이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베른주내의 소수 불어계 쥐라인들 그들의 축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한 돌발 사건이 신헌법 채택후 반세기가 지난 1947년에 일어났다. 베른의 9명 주각료중에는 법률에 의해 2자리를 쥐라지방출신 인사에게 할당하도록 배려되고 있었다. 이 9명의 각료는 각기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중 중요부서들은 연공서열이 높은 선임각료들에게 배정되는 것이 베른주정부내의 관례이다. 그런데 문제의 1947년 사건은 공공건 설사업과 철도를 담당하던 장관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임순서에 따라 그 후임자로 쥐라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것이 발단이었다. 독일계 일색의 주의회에서는 그의 인준을 즉각 거부해버렸고, 마치 쥐라사람은 그토록 중요한 임부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듯이 그 자리에 독어계 각료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쥐라는 1815년 베른주에의 합방 이래 누적되어 온 갖가지 불만과 요구로 온통 들끓게 되었다. 이에 베른주정부는 자신들을 인정하라는 쥐라인들의 격렬한 요구를 앞장서 진정시켰으며, 드디어 1950년에는 불어를 쥐라의 언어로 공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헌법개정이 뒤따랐다. 일련의 사건들과 여론의 압력, 특히 불어권 주들의 단결앞에 베른주는 언어적 소수파인 쥐라인들에게 대폭적인 특별지위와 권리를 보장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프리부르주내 소수언어인 독어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자못 여리모로 대비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1950년에 개정된 베른주 헌법은 우선 독어와 불어를 동등하게 국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내 독어권에서 독어가 그리하듯이 불어권 쥐라지역에서는 불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프리부르주가 사린느區의 소수 독어계 주민들을 전혀 무시한 채 불어 전용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른주에서는 언어경계선상위에 있는 빌市를 2개언어 공용지역으로 선포하여 이곳의 소수 불어계 주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주의회내에는 독어계와 불어계 동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두어 쥐라지방과 그 나머지 베른주내 독어권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맡기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적 차원에서 언급되는, 자못 이를 뿐일 수도 있는 자치적 지위로는 이미 쥐라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반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 이 지방의 여러단체중 특히 '쥐라연합(Rassemblement jurassien)'은 베른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른다. 이어지는 1960년 대 10년간은, 쥐라에게 이미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믿는 독어계와 이를 대표하는 주정부에 맞서 여러차례의 과격폭력시위를 주도한 극단분리파, 그리고 베른주내에 머물면서 자치적 지위의 확대를 바라는 혼건파, 심지어 분리반대파에 이르기까지 쥐라내부에

서 갖가지 입장들이 표출되는 혼란한 시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현상은 쥐라 남북간의 구조적 대립이었는데, 쥐라산 고지에서 대대로 낙농업에 종사하며 구교를 믿는 북부는 열렬한 분리주의자였는데 반해, 남쪽 산기슭 밑에서 시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신교 도시지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베른주와 관련이 깊어서 상당수의 독어계 주민들도 이주해와 살고 있으니 이런 분리운동에 냉담한 채 현상유지를 원했던 것이다. 스위스로 망드나 독어권내 일부 지식인층 그리고 몇몇 유력 독어신문들의 지원 속에서 계속된 쥐라분리주의 운동은 드디어 1970년 베른주로부터 이 문제에 있어 쥐라주민들에 의한 자결원칙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1974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3차례의 단계별 국민투표(구, 읍, 쥐라전역)에 의해 쥐라지역을 남북으로 분할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북부지역은 베른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쥐라주를 이루었고, 1978년 9월 24일에는 마지막 주, 즉 26번째 주로 스위스연방에 당당히 가입하게 된다. 한편 쥐라의 남부지방은 민의에 따라 베른주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지만, 그 중 일부 소수 분리주의자들은 1815년 이전의 모든 영토를 회복한 통합된 쥐라에로의 복귀를 아직도 꿈꾸고 있다.

이렇듯 전후 스위스의 가장 심각한 정치쟁점이었던 쥐라문제는 언어라는 X축, 종교라는 Y축, 게다가 정치경제적인 Z축에 의해 현재의 좌표로 설정 해결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때에 쥐라외곽에 위치하나 언어는 독어이며 종파는 구교인 라우펜(Laufen) 지역은 같은 구교인 쥐라주를 버리고, 종파는 다르나 언어가 같은 베른주에의 잔류를 결정했던 것이다.

VII. 스위스의 언어적 위기

유럽의 북판에서 남부과 동서를 잇는 교차로의 구실을 하며, 4개의 국어 그리고 3개의 공식어를 가지고 있는 다언어주의 연방국가 스위스의 언어현실은 4개 언어권 각자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보호유지하려는 취지의 속지성의 원리위에 근거하고 있다. 언어권역들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이 원칙은 기실 모든 독어계 스위스인 중 96%가 독어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어계 스위스인의 92%가 스위스로 망드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타당성이 재차 확인된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불과 30년간 사이에 그라우뷘덴주내의 35개 로망쉬어읍들이 자신의 보어를 버리고 독어를 공식어로 취했다는 통계자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언어들의 자연스런 역사적 전개를 도외시한 채, 변화의 한 순간에 인위적인 언어경계선으로 어떠한 상태를 영구히 고정하려는 이러한 시도의 무모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속지성의 원리에 버금가는 스위스 언어정책의 원칙으로 평등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로망쉬어가 공식어에서 제외된 사실은 이미 언어들간의 법적인 불평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獨, 佛, 伊 3개의 공식어들 사이에도 심각한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방의회에서 티치노주 출신 의원이 보어인 이탈리아어로 발언한다면, 독어나

불어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관례상 그의 연설이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언어들간에 존재하는 혁실적 불평등은 평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즉 상용인구수의多少에서 비롯되는데,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만은 양이 곧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단지 능률적이란 이유만으로, 연방정부내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대국민 발표문의 90%가 독어로 기안된다는 사실은 연방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스위스로망드의 소외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투표기권율의 원인을 독어권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찾고 있는데 비해, 불어권에서는 '정치적 무력감'으로 설명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독어권과 불어권, 한 국가안에 이마를 맞대고 공존하는 이 둘 사이에는 상이한 언어와 이질적 문화의 차이가 빛어내는 불편한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는데, 여기에는 역시 두 언어권간의 정치사회적인 거리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의 우열이 내재되어 있다. 국토면적의 27%, 생산인구의 23%를 보유한 스위스로망드는 식품업과 시계제조업을 주산업으로 하여 국민총생산의 22.7%를 차지하고로 외형적으로는 스위스내에서 평균적 경제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세계를 상대하는 보험회사 은행등의 금융기관, 수많은 다국적 대기업들 그리고 집중적인 연구기술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기간산업인 화학과 기계공업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곳은 역시 바젤과 취리히 등지의 독어권지역이다. 따라서 불어권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이 눈부신 상공업을 앞세운 독어권 스위스의 '경제적 식민지'라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다. 만약 독어계 회사 하나가 로랑디 내 지사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현지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혹간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게 된다면, 독어권에 위치하는 본사들이 기업전체를 고려해 취하게 되는 정책들이라는 것이 당장 불어권내 지역 경제위기를 물고 온 것 또한 경험적 사실이다. 게다가 불어권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요직의 태반이 독어계 스위스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니, 독어계 재벌이 불어권내에 공장을 건립한다면, 이 새로운 직장을 이끌어간 중요간부의 충당은 전통적으로 경제산업분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불어계가 아니라, 당연히 본사에서 파견된 잘 훈련받은 독어계 경영인과 기술진일 것이다. 그러므로 스위스로망드가 경제영역에 있어 독자성이 없이 지나치게 독어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과 아울러, 여기에서 자연히 파생하는 독어의 불어에 대한 현저한 경제사회적 우위는 결국 언어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이 언어들간에 유지되어온 대등한 관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것이다.

현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와 산업기술분야를 차치하더라도, 스위스의 불어권과 독어권사이에는 일상의 행동양식이나 삶의 자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쉽게 노정된다. 문화 또는 역사적 전통의 뿌리가 다르다는 데서 기인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는 현실에서는 흔히 정치사회적인 측면으로 포착된다. 여러가지 정치현안들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 두 언어권간의 문화적 골의 깊이를 밝혀보려는 취리히 대학의 까마르텡(Camartin, 1982:279)교수의 연구중에서, 1980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관한 국민투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다른 경우들에는 언

어권이란 요소이외에도 사회계층이나 연령과 성별, 특정 정당이나 종교에의 편향여부 또는 도·농간의 거주지역 차이 등 수많은 인자들이 동시에 작용해 투표성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에 관한 이 의무규정은 결국 스위스인의 52%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오직 유일한 결정인자로 작용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언어권 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독어계 스위스인의 78%라는 절대다수가 안전벨트의 의무화에 찬성했는데 반해, 스위스로망드에서는 불과 22%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불어권의 이런 거부감은 사생활의 영역 즉 개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너무 적접적인 개입을 저어하는 불어계 스위스인들의 정치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독어계 동국인들과 비교하여 정치감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이며, 개인과 국가사이의 관계설정에는 보다 덜 집단적이라고 평가된다.

언어문제에 있어 속지성의 원리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 연방은 경제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4개의 언어권사이의 균형적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다언어국가 특유의 두가지 상반된 위협이 존재하는데, 그 첫째가 합리적 실용성을 내세우는 중앙행정과 산업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독어로의 단일어화라는 구심론적 경향이다. 그러나 독립된 주권을 가진 26개 주들이 연합하여 이분이 연방국가내에서 모든 중앙집권적 시도는 항상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켜왔듯이, 타 언어들을 무시한 독어로의 수렴현상은 스위스내 다른 언어사용자들의 감정적 분개심의 자극과 아울러 본능적 방어행동을 촉발하므로 스위스라는 일체감을 자못 해손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원심론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또 다른 스위스의 언어적 위기감은 한 언어권이 자국내 타언어권들에 대해 취하는 폐쇄적이고 무관심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국경너머 같은 언어를 쓰는 외국과의 문화적 접촉에서 자기 나라 안의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에서 보다도 더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는 이런 사회문화적 분리주의는 다언어 다민족으로 구성된 스위스연방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국가적 연대감을 해치는 것이며, 앞으로 스위스인들이 다양한 차원의 상호간 이해 노력으로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중대과제인 것이다.

IX. 결 론

21세기를 맞이하는 유럽인들의 오랜 숙원인 명실상부한 유럽공동체란 단일시장이라는 경제적 통합,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방이라는 정치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유럽史上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하고 거대한 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정치, 경제적인 경계선이 제거된다고 해서, 제각기 유구한 역사와 상이한 전통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향유해온 수많은 민족국가들간의 뿌리깊은 문화적 편차마저도 일시에 모두 증발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란 그 속성상 어떠한 획일성도 거부하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거대 EC속에서 각 회원국가들은 자기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문화우월주의를 내세울 것임은 자명한 일이

므로, 당분간 역내의 문화적 분할은 더욱 가속화되어 기존의 국경선대신 문화권역들간의 경계선을 전망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로 어깨를 겨루는 여러 민족문화들간에 빛어지는 대립과 갈등양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에 의해 표출되어진다. 언어란 단순한 의사전달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것 스스로가 문화의 근간으로서, 여기에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의 역사전통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행동양식 그리고 인식체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기정체성의 정신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럽통합을 위해 EC내에 상존하는 문화적 경계를 극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장벽을 뛰어 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여 12개의 회원국과 9개의 공식어를 가진 EC내에서 예상되는 언어문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데에, 4개의 국어와 3개의 공식어를 가진 연방국가 스위스의 언어상황은 자못 그 축소판 모형을 제공해주고 있는 듯 하다. 우선 스위스의 모델이 보여주는 바는, 각기 다른 고유 문화권을 둘에 업고 있는 제언어들간의 접촉과 경쟁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단일어로 언어적 통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EC역내에서도 문화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스위스식 속지성의 원칙, 즉 언어권역간의 현상유지와 한 지역내의 언어적 동질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언어정책이 채택될 것이라 예견된다. 그러나 불어와 독어가 접촉하고 있는 스위스의 프리부르와 쥐라의 경우에서 노정되다시피, 사실상 실제적인 언어들간의 평등은 결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실 언어란 분명 문화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제언어들의 조우현장에 있어서 언어는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력과 상용인구수의 다과에 따라 그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점쳐볼 수 있는 것은,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룬 후 UN상임이사국을 바라볼 정도로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독일, 그리고 서유럽 최대 상용인구를 보유한 독일어의 국제어로의 부상일 것이다. 통일독일의 인구는 7천 8백만명으로써 6천만이 채 못되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솟직으로 월등하며, 총567석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 99명의 자국의원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각기 87개의 의석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전체와 스위스의 대반이 독일어를 상용하고 있으며, EC가입을 열망하는 동구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은 독일과 역사적 배경을 나누는 관계로 하여 이전에 사용되었던 독일어가 급속히 부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EC역내 뿐만 아니라 중부유럽에서 소련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마르크경제권의 위세속에서, 유럽통합의 견인차인 독일의 언어인 독일어가 급부상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비해 이미 세계적인 국제어로 발판을 굳힌 영어와 불어는 앞으로 유럽공동체내에서 그 입장이 다소 수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영어는 종주국인 영국이 유럽내륙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EC역내에서 이를 모국어로 갖는 나라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인구수가 독어에 비해 현저히 열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서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영국은 이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공동체내에서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으므로, 언어 문제에서도 기존의 제1국제어의 지위를 통합유럽내에서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독일어에

게 얼마나 그 영역을 침식당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주역을 맡아온 프랑스의 불어는 경제력의 상대적 열세와 문화우월감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불어권스위스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이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로망디에서 사용되는 불어는 스위스의 경우에서 보듯 변함없는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망된다. 이렇듯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를 가진 유럽공동체안에서 제언어들간의 조우와 경쟁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며, 다양하게 대두될 언어문제의 향방이야말로 유럽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즉 역내 주민들이 타회원국의 문화와 전통을 접촉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유럽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식의 고양만이 문화적인 장벽마저도 허물어뜨리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통합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장래의 유럽공동체속의 언어문제를 예전해보기 위해 선정한 스위스모델의 현장답사를 시행한 것은 덴마크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을 부결시킨 직후인 92년 여름의 일이었다. 당시 유럽현지의 분위기는 대유럽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유럽통합에 건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좌절의 충격과 불투명한 EC의 장래에 관한 우려로 암울하기만 했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스위스내 독어권과 불어권이 이마를 맞대는 언어경계선을 따라 빌, 베른, 프리부르, 발레 등지의 현장답사를 마치고, 제네바의 꼬르나뱅역에서 파리행 열차를 기다리는 필자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은 유럽통합의 발안자이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초대의상이었던 장 모네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었다.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문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은 어문학자인 필자에게는 ‘언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될 것이라는 뜻으로 새로이 새겨졌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건수

- 1992 “캐나다속의 퀘벡 그 언어와 문학 : 접촉과 갈등의 문학론”, 『충남대북미주연구 소 논문집 제1호』
- Blancpain, Marc et Reboullet, André
- 1976 *Une langue : le français*, Hachette
- Boulanger, Mousse et Corbat, Henri
- 1988 *Littératures de Suisse romande*, Sared S.A.
- Calamc, Christophe
- 1991 *Septi cents ans de littérature en Suisse romande*, E.L.A. La Différence
- Camartin, Iso
- 1982 “Les relations entre les quatre régions linguistiques” in Robert Schläpfer, *La Suisse aux quatre langues*, Zoé, 1985(불어판)
- Charpilloz, Alain
- 1992 “Le français et ses tortionnaires” in Actes du colloque d'Yverdon-les-Bains 1992,

- Ici on parle français!, Cahiers de la renaissance voudoise*
 Fahrni, Dieter
 1983 *Histoire de la Suisse*, Pro Helvetia, 1991(6판)
- Gilliard, Charles
 1944 *Histoire de la Suis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10판)
- Haas, Walter
 1982 "Histoire linguistique de la Suisse" in Robert Schläpfer, *La Suisse aux quatre langues*, Zoé, 1985(불어판)
- Knecht, Pierre
 1979 "Le français en Suisse romande : aspects linguistiques et sociolinguistiques", in Albert Valdman, *Le français hors de France*, Champion
 1982 "La Suisse romande" in Robert Schläpfer, *La Suisse aux quatre langues*, Zoé, 1985
 (불어판)
- Knecht, Pierre et Rubattel, Christian
 1984 "A propos de la dimension sociolinguistique du français en 'Suisse romande'" in *Le français moderne*, Tome LII № 3/4
- Lüdy, Georges et Py, Bernard
 1986 *Etre bilingue*, Peter Lang
 1989-1990 "La Suisse : un laboratoire pour l'étude de la dynamique des langues en contact" in *Langage et société*, № 50-51
- Mackey, William
 1976 *Bilinguisme et contact des langues*, Klincksieck
- Malherbe, Michel
 1983 *Les langages de l'humanité*, Seghers
- Reboullet, André et Tétu, Michel
 1977 *Civilisations et littératures d'expression française*, Hachette
- Rubattel, Christian
 1976 "Recherches sur les langues en contact(en Suisse)" in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o 21
 1985 "Une crise du français en Suisse romande?" in Jacques Maurais, *La crise des langues*, Robert
- Walter, Henriette
 1988 *Le français dans tous les sens*, Robert Laffont

The Competition of the Several Languages in EC, a Study of the Multilingual Model of Swiss

Kun-Soo Lee

Since the treaty of Maastricht, bearing the European Union in mind, European Community(EC) has strongly advanced to a politic-economic unity beyond the level of a European single market taking on the characteristic of a customs union. In the radical movement of integrating various peoples with long histories, as well as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however, the greatest difficulty with which common people are confronted is the problem of language. Even though the concept of a national boundary has disappeared, a language boundary still remains and thus the contact and competition among various languages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Therefore, Swiss, where four national languages of German, French, Italian and Romanche are spoken, has been examined as a language model of EC. For Swiss is a multi-language federal government based on the so-called principle of territoriality which aims at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among various language areas and the protection of linguistic homogeneity in each area. In particular, the districts of bilingualism in the linguistic boundary between the French area centered on Geneva and the German area centered on Zurich are the scenes of inequality where the importance of language is determined by economic power, political influence and above all the number of the language-speaking population.

이건수, 충남대 불문과 부교수

주소 : (305-764) 대전직할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Tel : (042)821-5351(O), (042)483-2784(H)